

# 대학원생 표준 학술능력 진단평가 도입 제안: 호주 시드니대학교 MASUS 사례를 중심으로

손소라\* · 안미리\* · 차현진\*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과

## Suggestion for Measuring the Academic Skills of Graduate Students A Standard Diagnostic Assessment: Focusing on the MASUS Procedure of University of Sydney

Sora Son\* Milee Ahn\* Hyun-Jin Cha\*

\* Dept. of Educational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원생의 연구 수행을 위한 학술적 역량 진단 및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성취 과정을 지원하는 대학원생의 표준 학술능력 진단평가 도입을 제안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호주 시드니 대학교의 대학생 학업능력 진단평가 모델인 MASUS(Measuring the Academic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A Diagnostic Assessment)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질적연구 방법 중 도구적(instrumental) 사례 연구를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 수집 단계에서 시드니대학교 학습지원센터 관계자와의 반구조화된 면대면 인터뷰 및 문헌자료를 정보원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MASUS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학문적 소양으로서의 글쓰기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대학원생 학술 역량 진단평가 도입의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모든 대학원에서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표준 진단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긍정적인 진단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1. 서 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식정보화 시대의 개막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자본에서 인적자원으로의 변화를 이끌며, 국가가 지니고 있는 인적자원의 양과 질이 그 국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은 인적자원 개발 및 인간실현의 주춧돌이다. 정보화 및 세계화로 인한 경제·사회의 심층적 구조 변화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 끊임없는 전략적 대응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과 혁신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의 관건은 지식과 기술의 원천인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에 좌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통해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의 대량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7, 80년대의 산업 사회에서 빠르게 양적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도래된 지식경제시대에서는 더 이상 배출인력의 양(Quantity)로 승부될 수 없으며, 고등교육은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엘리트 양성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식경제사회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1].

지식정보사회에서 학습이란 사전에 계획된 보편타당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문화적인 관련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구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융통성 있게 수용하는 학습체계를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사회의 맥락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가치창출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고등교육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3],[4].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식을 탐구하고 생산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 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연구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대학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면[5], 대학원 교육은 바로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고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6]. 이에 따라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수행되어지는 대학원의 교육 환경에서 교수의 관점 하에 대학원생이 보유한 핵심 연구역량의 기대수준 및 현재수준을 파악하여 다소 부족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향후 중견연구자로서의 성장 지원과 지식경제시대의 수요에 맞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핵심 사항이다.

한 연구(박현정, 신태수, 2007)에 따르면, 성공적인

연구수행에 필요한 대학원생의 핵심 연구역량으로 연구 문제제기, 학문적 글쓰기, 창의적 연구 질문 생성,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자료 생산, 수집 및 분석을 규정하였다[7]. 대학원 석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요 연구역량으로써 대체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글쓰기 능력의 경우, 연구자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역량이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선행교육을 통해 갖추어진 보편적인 역량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관심 및 점검과 평가를 통한 글쓰기 능력 향상 지원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글쓰기 능력은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개개인의 과거 수행경험이나 발달수준, 학문분야, 관점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6]. 따라서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소양(academic literacy)으로써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문적 소양으로써의 학생의 글쓰기 능력 배양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호주 시드니대학교에서 개발된 MASUS는 다수 관련 연구를 통해 학생 학술역량 진단평가 모델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여러 대학들이 MASUS를 기초로 한 변형된 형태의 진단평가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호주 시드니대학교에서 학습지원센터에서 개발한 대학생 학업능력 진단평가 체제인 MASUS를 연구대상으로

질적연구 방법 중 도구적(instrumental) 사례연구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 수집 단계에서 시드니대학교 학습지원센터 관계자와의 반구조화된 면대면 인터뷰 및 문헌자료를 정보원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MASUS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문적 소양으로서의 글쓰기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대학원생 학술 역량 진단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인터뷰

#### 2.1.1 면담자 정보 및 방법

<표1> 시드니대학 학습지원센터 관계자

| 일시                                      | 면담자          | 직급  |
|---|--------------|-----|
| 대면 인터뷰<br>2017.11.18.(화)<br>13:00~14:30 | Browyn James | 센터장 |
|   | Alex Garcia  | 운영자 |

### 2.1.2 인터뷰 문항

<표2> MASUS 관련 인터뷰 문항

|   |   |
|---|---|
| 1 | Do you cater to graduate students in addition to bachelor's students? If so, in general, do they have a different concern as compared to bachelor's students? |
| 2 | Is MASUS designed for individual classes, as opposed to a larger group of students?   |
| 3 | How prevalent is the use of MASUS within the University of Sydney? Have you had tangible success with it?   |
| 4 | How do you administer MASUS? Is it paper-based, or online-based?  |
| 5 | If online-based, do you have a dedicated platform to administer and assess MASUS?   |

## 2.2 문헌분석

상기 학습지원센터 관계자와의 대면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문헌자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드니대학교에서 자체 발간한 MASUS 관련 연구보고서 및 학습지원센터 2016 연간 보고서를 분석하여 MASUS 개념 및 특성을 도출했다. 동일한 맥락상의 인터뷰 및 문헌분석을 분리하기가 모호하여 MASUS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MASUS의 이해로 정리하였다.

## 3. MASUS의 이해[9],[10],[11]

### 3.1 MASUS의 개발 과정

호주 시드니대학교의 학습지원센터는 본교 입학생의 학술적 소양(academic literacy)를 측정하기 위한 진단평가 도구로써 MASUS(Measuring the Academic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MASUS는 MASUSS(Measuring the Academic Skills of University of Sydney Students) 프로젝트(MASUSS Project Reports, 1993 - 1995; Webb and Bonanno, 1994, 1995, Webb, English and Bonanno, 1995)의 일환으로써 학부 신입생의 학문적 역량 평가에 대한 교수진의 요구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교수와 학습지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학습지원센터 직원 간의 협업을 통한 학생 학술 역량 진단 및 평가 과정이다.

### 3.2 MASUS의 기반인 문해 정의

MASUS 진단 절차의 기반(basis)이 되는 문해(literacy)의 정의는 호주 DEET(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의 언어 및 문해에 관한 정책 문서(1991)에 근거한 시드니 대학의 교과

위원회(the Academic Board of the University of Sydney)의 ‘학생들의 서면 및 구두 의사소통 기술’ 정책에 따른다.

이에 따르면, 문해(literacy)는 서면 정보를 읽고 사용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적절하게 글을 쓰는 능력으로써 말하기, 듣기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에 기반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보유한 상태를 의미한다.

MASUS의 명시된 문해력 기준(specified criteria)에 따라 전체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학생집단(cohort)의 문해력 속성 및 분포(literacy profile)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 3.3 MASUS의 진단평가 방법

통상적으로 진단평가는 대상 학생의 연구 분야를 반영하여 선정된 주제에 대한 배경정보(텍스트, 시각 및 수치 데이터)에 기초하여 비판적인 평가를 요하는 500 단어 가량의 서술형 문항 작성과 독해 문항(reading tasks)로 구성된다. 해당 주제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이론적 근거는 이러한 평가 활동이 지식 습득 정도에 대한 성취 평가가 아니라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방식으로 제시된 지식 체계에 대해 사고하는 능력과 이를 적절하게 서술하기 위하여 언어 자원을 조작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있다.

학생의 학술적 글쓰기(academic writing)에 대한 4가지 주요 영역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 학생 글쓰기 평가 기준

|   |  |
|---|--|
| A | 해당 평가 활동에 대한 구두, 시각 및 수치 데이터의 정보 검색 및 처리가 정확하고 적절한가? |
| B | 해당 평가 활동과 그 맥락에 비추어보았을 때 텍스트의 구조와 개발이 분명하고 적절한가?     |
| C | 영어로 기술하는 데에 있어 학술적 구성(academic style)에 부합한가?         |
| D | 문법적 정확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3.4 MASUS의 결과 활용

학습지원센터는 상기 기준에 따라 도출된 평가결과를 해당 학과와의 논의에 근거하여 학생집단의 문해력과 기본적(generic) 학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자원 활용 방안 마련 및 교과 과정 재설계를 위한 지침으로써 활용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개별 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로써 기능을 한다. 낮은 문해력으로 교과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사전에 식별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대학교 입학 전의 서로 다른 경험과 문해 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신입생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이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그들에게 기대하는 학습 수준을 인식하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MASUS는 신입생에게 현재 그들이 보유한 문해 수준에 비추어 전공 과정의 학습 기대 수준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학습 과정상에서 그들의 핵심 역량 향상을 도울 수 있다.

MASUS를 통해 학생은 문해 능력을 이루는 학술적 글쓰기에 있어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학습지원센터에서는 학생 개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 자원이나 워크숍 등을 추천해 줌으로써 학습능력진단-평가-개선-환류의 순환 체계를 이뤄 학습과정의 효과성을 높인다.

### 3.5 MASUS 온라인으로의 확장

또한,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시행되었던 MASUS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촉진된 교육환경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 기반의 평가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며 평가 과정상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학생이 Turnitin Feedback Studio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평가 과제를 제출하면 평가자가 다양한 평가준거(rubric) 및 Quickmark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채점 및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평가자는 평가준거에 따라 학술적 구성(academic style)과 문법(grammar), 인용법(citation), 구조(structure) 등에 대한 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전산 기반의 Quickmark를 통해서도 구두점 문법(punctuation), 영어 관사의 문법(articles) 등에 대한 채점을 통해 작문의 문법적 완성도 및 정확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평가준거와 Quickmark를 통해 오류 발생 빈도 등을 파악하여 개별 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방향을 제안하게 된다.

### 3.6 MASUS의 활용 범위

본교 학부 입학생에게 적용되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던 MASUS는 이러한 특성에 근거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학부 전공(약학과, 간호학과, 경제학과, 국제관계학과 등) 교과 과정(curriculum)과 평가 구조에 통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학부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석·박사 과정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시드니대학교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학원인 사회학과에서 MASUS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MASUS의 전체 절차상 전공 별, 분야 별 차이(variation)을 수용하는 데에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시될 주제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전공 별 특정 요구 사항에 따른 평가 기준 수정, 적절한 표준화 정도, 학생에게 제공될 피드백의 성격과 시기 후속 조치 수준, 기타 상황별 제약조건(평가장소, 시기) 등에 따른 변형사항들을 MASUS 과정상에 반영할 수 있다.

## 4. 결론 및 제안

그 동안 국내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기초학습능력 진단 또는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12]. 그러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 수행을 위한 학술적 역량기반에 대한 연구와

역량 배양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석사과정의 학생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학술적 소양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에 진학 하더라도 학술적 소양 및 연구 역량이 부족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학교와 사회가 교육의 가시적 성과를 전공에 대한 지식으로만 측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학부과정이 자신의 전공에 대한 암기 공부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인 탓이 크다. 즉, 대학 졸업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에 전공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비평적 사고와 학술적 역량에 대한 조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학술적 글쓰기 역량은 후천적 기술(skill)의 일환이기 때문에 연습과 경험을 통한 습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대학 교육에서는 석·박사 과정을 위한 학술적 역량에 대한 기초를 다지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석사 학위는 박사과정에서 학문을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학문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자신의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 행위의 기본 능력, 특히 문제 파악 능력과 그 해결 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그 동안의 학문적 담론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말한다[13]. 이에 따라 이러한 능력을 통해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성과를 정리 및 서술할 수 있는 학술적 역량은 중요성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대학원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학술 행위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학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6]. 특히, 석사과정의 경우 학부 전공과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오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특정 전공에 대한 학술적 소양을 배양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석사과정은 학사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만큼 이러한 적응을 보조하는 지원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교육부는 새로운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창의성 및 전문성을 갖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고등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2~4년제로 제한돼 있던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1년제 석사학위과정 도입에 관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고등교육법 제 26조 수업연한의 단축)을 공포하였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고등교육기관의 수업연한 다양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학업 과정이 단축된 만큼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술적 소양 배양에 대한 지원이 보다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단 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연구 수행을 위한 학술적 역량 점검 및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성취 과정을 지원하는 MASUS와 같은 진단 평가 모델은 학생의 학문적 성과를 도모하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ASUS는 호주 현실 상황에 적합한 진단평가 모델로써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 및 학술적 역량에 대하여 교수와 학생 각자가 기대하는 바와 기준에 대한 적용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한계로 남는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모든 대학원에서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표준 진단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긍정적인 진단문화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 1 ] 양정호·한신일·이석열 (2007). **현행 대학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감사원 평가연구원 (연구보고 CR 2017-).
- [ 2 ] 노상우 (2003). 정보화시대에서의 중등학교 변화와 과제. **한국교육철학회, 교육철학, 제30집**.
- [ 3 ] 박민정 (2008).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6(4)**, 173-197.
- [ 4 ] 이돈희 (2003). **세계적 전환과 교육학적 성찰**. 서울: 교육과학사.
- [ 5 ] LaPidus, J. B. (1997). *Doctoral education: Preparing for the future*. Council of Graduate Schools. Washington, D. C.
- [ 6 ] 최윤미 (2010). 연구역량에 대한 이해: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집단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2)**, 1-27.
- [ 7 ] 박현정, 신태수 (2007). 고등교육기관 핵심역량의 구조화 및 경쟁력 지표의 개발과 적용: S대학 교육학과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3)**, 21-53.
- [ 9 ] The University of Sydney (2016). **Academic Enrichment**. Annual Report. Sydney: the Learning Centre, University of Sydney.
- [ 10 ] Helen Bonanno & Janet Jones (2007). **The MASUS Procedure: Measuring the Academic Skills of University Students A Diagnostic Assessment**. Sydney: the Learning Centre, University of Sydney.
- [ 11 ] 호주 시드니대학교 학습지원센터, 센터장과의 면담. 2017년 11월 28일.
- [ 12 ] 최길성·이승희 (2011). 전문대학 기초학습 능력 향상 방안: D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4)**, 468-476.
- [ 13 ] 이정준 (n.d.). **학술논문쓰기** (인터넷 기고문). <http://german.kr/papers/doctorvater.html>.에서 검색